



2026
05.08
주간 제 472호

중국 창업

WEEKLY 뉴스
CHINA 창업
KIC 뉴스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hina.org

WEEKLY 뉴스

세계적 기술 난제 해결, 중국 첫 대규모 소금동굴 수소 저장 프로젝트 가동	1
아너 휴머노이드 로봇 이창(亦庄) 하프마라톤 상위권 석권, 연내 소량 양산 계획	2
딥시크, 中 국산 칩 적용 확대로 AI 연산 인프라 다변화	3
중국 최초 전 과정 독자 설계, 자이로플레인 '핑선(风神)' 첫 비행 성공	5

CHINA 창업

[산업분석] 2026 베이징 모터쇼, 7대 핵심 기술로 본 글로벌 최대 자동차 전시회	8
[산업분석] 지능형 제조가 이끄는 변화, 칸톤페어를 통해 본 '스마트 경제' 트렌드	17
[기업분석]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상장기업-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22
[지역분석] 베이징 하이덴구 상디	27

KIC 뉴스

대구시청 대표단 KIC 중국 방문 및 메이탄 시찰...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협력 '가속도'	31
2026 WRC 연계 한중 로봇 혁신 파트너십 워크 모집 공고	33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34
------------------	----

WEEKLY 뉴스



세계적 기술 난제 해결, 중국 첫 대규모 소금동굴 수소 저장 프로젝트 가동	1
아니 휴머노이드 로봇 이창(亦庄) 하프마라톤 상위권 석권, 연내 소량 양산 계획	2
딥시크, 中 국산 칩 적용 확대로 AI 연산 인프라 다변화	3
중국 최초 전 과정 독자 설계, 자이로플레인 '핑선(风神)' 첫 비행 성공	5



세계적 기술 난제 해결, 중국 첫 대규모 소금동굴 수소 저장 프로젝트 가동

중국 최초의 '백만 m^3 급' 소금동굴 수소 저장 프로젝트가 4월 25일 허난(河南) 핑딩산(平顶山)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수소의 대량 저장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며, '생산-저장-운송-활용'으로 이어지는 중국 수소 산업이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밀한 부지·지층 선정 과정을 통해 시추 깊이 1,418m 를 확정하고, 수용 체적 3만 m^3 이상 규모의 소금동굴 공동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약 150만 표준 m^3 의 수소를 저장했으며, 소금동굴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 저장을 실제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핵심 기술이 확보되었다. 층상 암염을 활용해 수소 저장 설비를 구축한 첫 사례로, 초저투과성 암염층에서의 수소 이동 특성을 규명하고, 저장 공간 조성을 위한 입지·지층 선정 정밀 기술을 마련했다. 또한 층상 암염 기반 저장 방식의 장기간 밀폐 성능과 공학적 실현 가능성도 검증했다. 이와 함께 수소 접촉으로 인한 소재 부식과 설비 밀폐 등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 취성에 강한 강관과 고밀폐성 유정 장치를 개발했다. 핵심 설비는 모두 중국 국산 기술로 개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하 수소 저장 기술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상-유정-저장 공동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지상 수소 농도, 유정 진동 신호, 기체·액체 경계면 깊이, 공동 내 지진 신호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안정적인 설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의 지질 기반 수소 저장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 향후 수소 저장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대규모 저장, 비용 절감, 높은 안전성이라는 장점을 통해 수소 산업 전반의 흐름을 개선하고, 대규모 수소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촉진하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출처: 신랑차이징)

아너 휴머노이드 로봇 이창(亦庄) 하프마라톤 상위권 석권, 연내 소량 양산 계획

최근 베이징 이창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2026北京亦庄人形机器人半程马拉松)가 막을 내렸다. 아너(Honor· 荣耀)의 '치텐다성(齐天大圣)' 팀 소속 휴머노이드 로봇 '산덴(闪电)'은 50분 26초(순기록)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인간 하프마라톤 세계기록(56분 42초)를 넘어서는 기록이다. 이어 아너의 레이팅(雷霆) 팀과 싱훅(星火) 팀 소속 '산덴(闪电)' 로봇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로봇 '위안치자이(元气仔)'는 최우수 보행상을 수상했다.



아너(Honor)는 약 1년 전부터 체화지능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2025년 4월에는 신사업 조직을 신설하고, 체화지능, 데이터, 인터랙션 보안, 동력계, 생체 모사 등 관련 연구팀을 꾸렸다. 이후 같은 해 5월 로봇 개발 성과를 처음 공개했고, 올해 3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첫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다. 현재 로봇 조직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계 설계부터 하드웨어, 운동 제어, 인지, 체화지능, 테스트까지 전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자체 개발 로봇 두 종 가운데 '산덴(闪电)'은 키가 169cm 에 달하며, 자율 인지 기반 이동 기능과 고속 주행 능력을 갖췄다. 운동을 함께하는 용도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도심 야간 러닝 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로봇 '위안치자이(元气仔)'는 키가

136.9cm에 달하며, 협업과 동반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춤 공연, 음성 대화, 멀티모달 인지 기능 등을 지원하며, 향후 소비자 시장을 겨냥한 주요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진출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샤오미(小米)는 2021년 사족보행 로봇 '사이버독(CyberDog)'을 선보였고, 비보(vivo)는 2025년 로봇 연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소비자용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IDC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업체들은 AI, 센서 기술, 생태계 통합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운동 제어와 동력 시스템 분야에서는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당분간은 정교한 작업 수행보다는 상호작용 중심의 동반형 서비스가 먼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아너(Honor)에게 로봇 사업은 단순한 신사업을 넘어, 기업 가치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2025년 6월 상장 준비 절차에 들어갔으며, 2026년 3월까지 상장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여러 차례 투자 유치로 진행했고, 투자자로는 차이나모바일(中国电信), BOE(京东方), CICC 캐피탈(中金资本) 등이 참여했다. 또한 '알파 전략'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AI 단말기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스마트폰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AI 단말기 생태계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도, 올해는 짐벌 카메라를 탑재한 '로봇폰(Robot Phone)'을 선보였다.

(출처: 차이렌서)

딥시크, 中 국산 칩 적용 확대로 AI 연산 인프라 다변화

최근 딥시크(DeepSeek)는 'DeepSeek-V4' 프리뷰 버전을 공개하고 오픈소스로 전환했다. 이번 공개 모델에는 'DeepSeek-V4-Pro'와 'DeepSeek-V4-Flash' 두 가지 버전이 포함됐다. 기존 모델이 주로 엔디비아(NVIDIA)의 CUDA 환경에서 구동된 것과 달리, 이번 DeepSeek-V4는 세분화된 전문가 병렬화 구조를 엔디비아의 GPU와 화웨이의 어센드(Ascend) NPU 환경에서 각각 검증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어센드 950 슈퍼 클러스터가 본격 공급되면, DeepSeek-V4-Pro의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화웨이의 어센드 슈퍼 클러스터 전 제품군은 DeepSeek V4 시리즈를 지원하며, DeepSeek V4-Pro는 약 20ms, DeepSeek V4-Flash는 약 10ms 수준의 저지연 추론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메타엑스(MetaX, 沐曦), 캄브리콘(Cambricon, 寒武纪), 모어스레드(Moore Threads, 摩尔线程), 일루바타 코어엑스(Illuvatar CoreX, 天数智芯) 등 중국 AI 반도체 기업들도 DeepSeek

V4 신규 모델 지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AI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통합 검증 센터와 함께 DeepSeek V4의 국산화 적합성 검증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번 검증은 칩, 서버, 올인원 장비, 클러스터, 개발 프레임워크 및 툴체인, 지능형 연산 인프라와 플랫폼 등 AI 전반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딥시크의 중국 국산 칩 적용을 AI 연산 인프라 다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인터넷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서로 다른 유형의 AI 연산 자원을 병행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AI 반도체 기업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엑스(MetaX)는 FlagOS 와 협력해 딥시크의 최신 오픈소스 모델인 'DeepSeek-V4-Flash'를 출시와 동시에 지원했다. 또한 상하이 인공지능 연구소의 'KernelSwift'와 협력해 DeepSeek-V4 핵심 연산에 대해서도 출시 초기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는 DeepSeek V4를 비롯해 Minimax 2.7, 스텝편(阶跃星辰)의 Step 3.5, Kimi 2.6, 즈푸(智谱) GLM 5.1, MIMO-V2 등 주요 대형모델이 중국 국산 GPU 연산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추론을 수행하고 있다.

즈위안(智源) 연구원이 개발한 'FlagOS'는 현재 DeepSeek-V4-Flash를 8종 이상의 AI 칩 환경에서 지원하며, 실제 추론 환경에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하이곤(Hygon 海光), 메타엑스, 화웨이 어센드, 모어스레드(FP8), 쿤룬신(昆仑芯), 티헤드(平头哥) 전우(真武), 일루바타 코어엑스 등 중국 국산 칩이 포함된다. 현재 FlagOS 는 DeepSeek-V4-Pro 모델의 다중 칩 환경 적용도 진행중이며, 향후 오픈소스 공개가 예정돼 있다.

DeepSeek-V4 프리뷰 버전 공개 이후 바이두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화웨이 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잇따라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클라우드 기업 PPIO 도 초기 단계부터 전면 도입에 나섰으며, 이로써 DeepSeek-V4를 가장 빠르게 적용한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딥시크는 신규 모델 공개 이후 API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전 모델에 대해 입력 캐시 적중 가격을 출시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Pro 모델에는 2026년 5월 5일까지 약 70% 할인에 해당하는 한시 프로모션이 적용된다. 이로써 DeepSeek-V4-Pro의 입력 비용(캐시 적중 기준)은 100만 토큰당 0.025위안, DeepSeek-V4-Flash는 100만 토큰당 0.02위안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편 딥시크는 고성능 연산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현재 V4-Pro 모델의 처리량이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어센드 950' 슈퍼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Pro 모델의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차이렌서)

중국 최초 전 과정 독자 설계, 자이로플레인 '평선(风神)' 첫 비행 성공

4월 28일, 이카이라이(翼凯来)엔타이항공설비유한공사가 독자 설계·개발한 '평선(风神) Zephyr AZ620' 자이로플레인이 산둥성 옌타이(烟台) 치샤(栖霞) 공항에서 첫 비행을 마쳤다.

비행은 약 38분간 진행됐으며, 기체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했고 조종도 정확했다. 동력과 로터, 항공전자, 비행제어 시스템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했으며, 주요 성능 지표는 설계 기준과 감항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종은 이카이라이(翼凯来)가 개발한 모델로, 중국 민항 감항 규정을 기준으로 전 과정을 독자 설계한 최초의 유인 자이로플레인이다. 개발에는 약 2년이 소요됐으며, 이 과정에서 자이로플레인의

공력, 동역학 설계, 경량 복합소재 구조, 감항 적합성 검증, 다양한 임무 장비 통합 등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소형 항공기 자율비행, 디지털 콧핏 기술 등 다수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시제 제작, 시험, 감항 인증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개발 체계도 갖췄다.

평선(风神) Zephyr AZ620은 최대이륙중량 600kg 급 기종으로, 2인승 병렬 좌석 구조의 밀폐형 콧핏을 적용했다. 기체에는 중국 최초로 전면 탄소섬유 모노코크 구조와 일체형 성형 공정을 도입해, 무게는 줄이고 강성은 높였다. 또한 이 기종은 듀얼 코어·이중 보정 구조의 자율비행 시스템과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자율 장애물 회피, 항로 설정, 자동 복귀 기능을 갖추고 있다.

2024년 초에는 형식증명(TC) 절차에 들어갔으며, 중국 민항 화동지역관리국은 심사팀을 구성해 산둥(山东)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항공기 TC 심사에 착수했다. AZ620은 첫 비행을 마친 뒤 검증 비행을 이어갈 예정이며, 연내 TC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증명(PC)은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이로플레인은 엔진이 꺼진 상황에서도 로터의 자전으로 동력 없이 활강해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Z620은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고, 최대 풍속 9급 수준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 95호 휘발유를 사용하며, 100km 기준 연료 소비량은 10~15L 수준이다. 이 기종은 항공 교육·체험, 비행 훈련, 농림 방제, 시설 점검, 긴급 구조, 의료 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신량차이징)

참고자료

- ◆ 신량차이징(新浪财经). 세계적 기술 난제 해결, 중국 첫 대규모 소금동굴 수소 저장 프로젝트 가동
<https://baijiahao.baidu.com/s?id=1863759655179612942&wfr=spider&for=pc>
- ◆ 차이렌서(财联社). 50 분 26 초(순기록)로 인간 기록 경신, 아너 휴머노이드 로봇 이창(亦庄) 하프마라톤 상위권 석권, 연내 소량 양산 계획
<https://baijiahao.baidu.com/s?id=1862868995502053857&wfr=spider&for=pc>
- ◆ 차이렌서(财联社). 국산 칩+국산 모델! 딥시크, 中 국산 칩 적용 확대로 AI 연산 인프라 다변화
<https://baijiahao.baidu.com/s?id=1863622218254579414&wfr=spider&for=pc>
- ◆ 신량차이징(新浪财经). 중국 최초 전 과정 독자 설계, 자이로플레인 '평선(风神)' 첫 비행 성공
<https://baijiahao.baidu.com/s?id=1863693708778616686&wfr=spider&for=pc>

CHINA 창업



[산업분석] 2026 베이징 모터쇼, 7대 핵심 기술로 본 글로벌 최대 자동차 전시회	8
[산업분석] 지능형 제조가 이끄는 변화, 칸톤페어를 통해 본 '스마트 경제' 트렌드	17
[기업분석]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상장기업-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22
[지역분석] 베이징 하이덴구 상디	27



[산업분석] 2026 베이징 모터쇼, 7대 핵심 기술로 본 글로벌 최대 자동차 전시회

2026년 4월 24일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北京车展)는 총 전시 면적 38만㎡ 규모로,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로 평가된다. 올해 역시 BMW, 벤츠, FAW(一汽·이치), SAIC(上汽·상치), HIMA(鸿蒙智行·홍명즈싱), NIO(蔚来·웨이라이), Li Auto(理想·리샹), Xiaomi(小米·샤오미) 등 주요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차량 총 1,451대가 전시됐으며, 여기에는 세계 최초 공개 모델 181대와 콘셉트카 71대가 포함된다. 신차 전시뿐 아니라, 풀액티브 지능형 새시, i-HEV 지능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차량 전면 유리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기술 수준은 물론, 향후 발전 방향을 보여주었다.

풀액티브 지능형 새시: 주행 성능과 승차감 동시 확보

2026년은 업계에서 '풀액티브 지능형 새시'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시기로 평가되며,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도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집중 조명됐다.

풀액티브 지능형 새시는 바이와이어 새시를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다. 풀 바이와이어 새시를 기반으로, 서스펜션, 조향, 제동 등 주요 기능을 알고리즘과 중앙 도메인 컨트롤러로 통합 제어해, 차량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바이와이어 새시가 사실상 주류 기술로 자리 잡았다. Li Auto L9, XPeng GX, IM Motors LS8, Leapmotor D19, AITO M9, NIO ES9, Chery EXEED EX7 등 주요 모델에 해당 기술이 적용됐으며, 일부 차량에서는 풀액티브 지능형 새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NIO ES9에 적용된 'SkyRide(天行·텐싱)' 통합형 풀액티브 서스펜션은 전동·유압 통합형 구조를 양산차에 구현한 사례로, 양산 차량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중국 브랜드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역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새로 공개된 벤츠 EQS 모델과 BMW iX3 롱휠베이스 모델 역시 바이와이어 새시를 적용하며 양산 확대 흐름에 합류했다.

한편 NIO 는 앞서 ET9을 통해 세계 최초의 스티어 바이와이어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는 한 단계 더 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새시의 4가지 핵심 기능(조향, 제동, 구동, 주행)이 모두 풀액티브 제어 방식으로 전환되는 '안전 바이와이어' 구조를 선보였다. 이는 풀액티브 지능형 새시 구현에 필요한 전 영역 통합 제어 기반이 갖춰졌음을 의미한다.

896라인 라이다, 더 정밀해진 자동차의 '눈'

지능형 주행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라이다는 고도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인지 센서로 자리 잡았다. 일반 라이다에서 192라인 라이다를 거쳐,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중점 소개된 896라인 듀얼 광로 이미지급 라이다에 이르기까지 기술 고도화 속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라이다 성능의 진화는 완성차 업체들이 고도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화웨이의 896라인 라이더는 모든 라인업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고 있다. HIMA(鸿蒙智行·홍명즈싱) 전시장에 공개된 최신 모델 AITO(问界) M9·M7·M6를 비롯해 SAIC(尚界) Z7·Z7T, STELATO(享界) S9·S9T, LUXEED(智界) R7, S7 최신 모델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화웨이 계열'로 분류되는 YJ Auto(奕境) X9 역시 모든 라인업에 해당 라이더가 탑재되어 있다.



이 밖에도 Huawei ADS(华为乾崮·화웨이첸쿤)와 협력한 VOYAH TAI(岚图泰山·란투타이산) Ultra, Avatar(阿维塔·아바타) 12, Avatar 06T 등도 해당 라이더를 가장 먼저 적용한 모델군에 포함된다.



AI 대형 모델의 차량 탑재: 사용자별 맞춤형 경험 구현

이번 베이징 모터쇼는 AI 대형 모델이 차량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멀티모달 인터랙션과 주행 시스템-콧핏의 통합이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AITO, LUXEED, Avatr 등 주요 브랜드는 홍명(鸿蒙) OS 기반 콧핏 5.0과 판구(盘古) 차량용 대형 모델을 통합 적용했다. 이를 통해 대화를 끊김 없이 이어가고, 맥락을 반영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광동어, 쓰촨어 등 다양한 방언을 인식하고, 여러 사용자의 명령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은 기존 음성 비서 기술에서 지적돼 온 '엉뚱한 응답'이나 '복잡한 명령 구조' 문제를 개선했다.



XPeng(小鹏汽车·샤오펑자동차)은 XNGP 4.0과 텐지(天玑) 대형 모델을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콧핏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사용자의 명령이 실제 주행 상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BMW 는 알리바바와 공동 개발한 맞춤형 AI 엔진을 차세대 모델에 적용하고, 딥시크(DeepSeek) 기술을 바탕으로 다중 AI 에이전트 협업 체계를 구현했다.

한편 Li Auto(理想汽车·리상자동차)는 콕핏과 주행 시스템을 통합한 중앙 통합 컴퓨팅 구조를 도입해 두 영역 간 경계를 허물었다. 이를 통해 주행과 실내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사용자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이용 경험을 구현하고 있다.

지능화 기능 '옵션'에서 '기본 사양'으로, L4 자율주행 본격 진입

2026년 들어 L3 자율주행은 더 이상 프리미엄 모델에만 적용되던 기능이 아니라, 시장 경쟁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그 대신 L4 자율주행이 새로운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는 L4 수준의 기술이 단순한 개념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XPeng 의 GX 는 L4 자율주행 기준으로 설계된 로보택시(Robotaxi) 프로토타입으로, 양산을 전제로 한 선타재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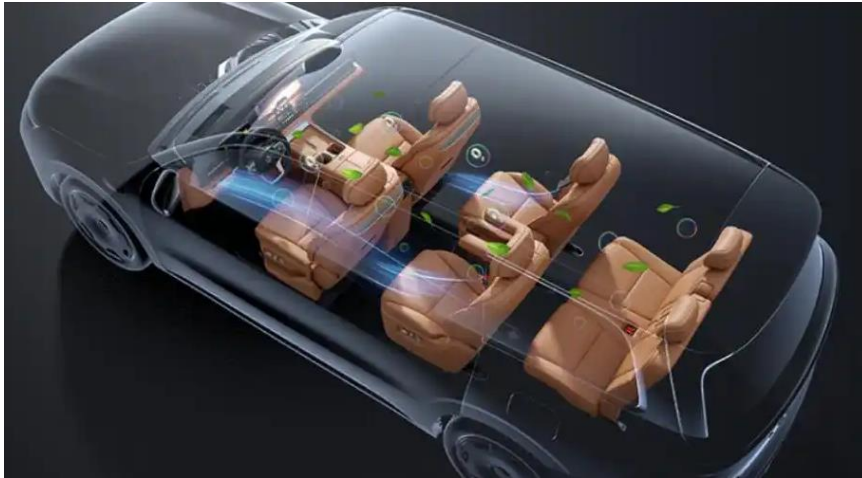


Luxeed V9은 Huawei ADS(华为乾崮) 보조주행 시스템과 896라인 라이더를 기반으로, 도심 NOA,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주행 등 모든 주행 환경에서 L4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수 완성차 업체들도 L4 자율주행의 실증 성과를 공개했다. 로보택시를 비롯해 산업단지 셔틀 차량, 도심 환경미화 차량 등 다양한 주행 환경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 수준 향상과 비용 구조 개선이 맞물리면서, 지능화 기능이 더 이상 선택 사양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L4 자율주행의 적용도 본격화되며, 중국 자동차 산업이 지능화 기능의 본격적인 양산 적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줬다.

에 적용한 모델이다. 분당 8L 수준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 고산병 증상과 주행 피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Luxeed V9 역시 차량용 산소 발생 장치를 통해 고지대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최대 4명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이동이나 비즈니스 출장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다.



차량용 산소 공급 기능은 다소 제한적인 용도로 보일 수 있지만, 고지대 주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크며, 주행 안전성과 탑승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차량용 산소 공급 기능은 고지대 주행이나 장거리 이동 등 환경에서 그 실용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면 유리 디스플레이 기술, 현실로 다가온 미래형 콕핏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는 선전광자결정테크(深圳光子晶体科技)가 '차량 전면 유리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실제 차량에 적용된 형태로 선보이며, 유리창이 곧 디스플레이가 되는 미래형 스마트 콕핏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기술은 차량 유리를 투명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물론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접점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현재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기술 검증 단계를 지나, 실제 상용화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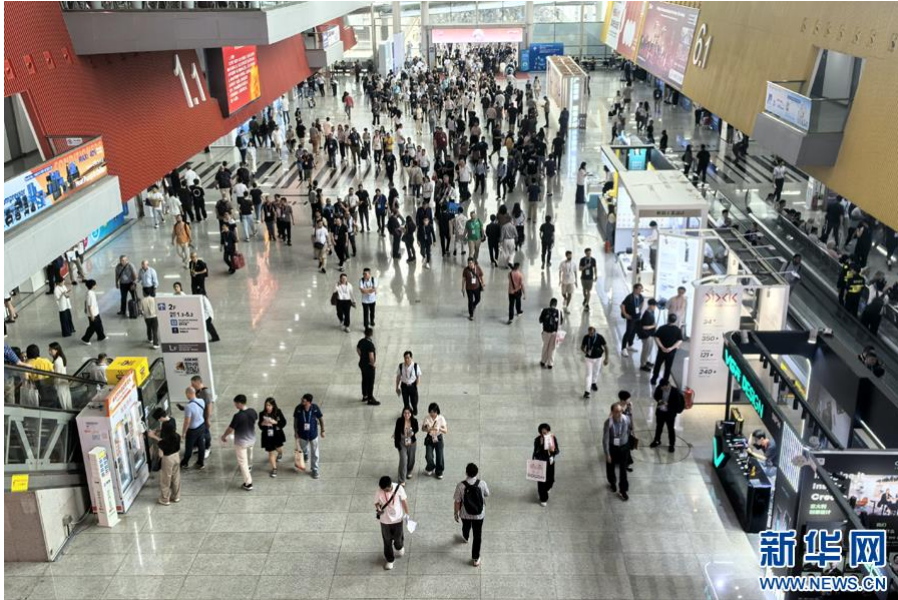
이번 2026 베이징 모터쇼는 이러한 흐름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능화와 편의성은 더 이상 일부 플래그십 모델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기술이 실험실 수준을 넘어 양산차로 이어지고, 선택 사양에서 기본 사양으로 자리 잡는 변화는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모빌리티 환경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 타이메이티 APP(钛媒体 APP). 2026 베이징 모터쇼, 7대 핵심 기술로 본 글로벌 최대 자동차 전시회
<https://baijiahao.baidu.com/s?id=1863407355914370557&wfr=spider&for=pc>

[산업분석] 지능형 제조가 이끄는 변화, 칸톤페어를 통해 본 '스마트 경제' 트렌드

최근 중국 광저우에서 제139회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广交会, 이하 칸톤페어)가 열렸다. 4월 27일 기준, 해외 바이어 참가자 수는 24만 5천 명을 넘어서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 웨어러블과 드론 등 9개 첨단 분야 전시존이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스마트 경제'를 둘러싼 새로운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AI 제품에서 지능형 서비스로

현재 AI 제품은 'AI+제품+서비스'를 결합한 모델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참가 기업들도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지능형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마사(玛莎) 광둥 리양바이닝(利洋佰挪) 해외 영업 담당자는 "글로벌 바이어들이 중국의 스마트홈 시스템과 스마트 기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제품 구매뿐 아니라 설계, 패키징, AS, 마케팅까지 포함된 종합 서비스를 함께 요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즈웨이(朱志伟) 인도네시아 창유그룹의(长友集团) 글로벌 구매 총괄은 "중국 기업의 지능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바이어들이 단순한 AI 제품을 넘어 제조, 유통, 크로스보더 물류 전반이 AI로 연결된 시스템과 생태계를 함께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이후이(翟辉) 광저우 칭추그룹(轻出集团) 부총경리도 같은 변화를 짚었다. 고객들이 통합 솔루션과 지능화 수준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은 기존의 무역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능화된 공급망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바뀌고 있다.

'단일 기능'에서 '통합 지능화'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을 인식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제품과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우디에서 온 바이어 오사마 씨는 이번 칸톤페어에 처음 도입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체험했다. 모바일 앱으로 따뜻한 밀크티를 주문하면 약 15분 뒤 드론으로 배송을 받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직접 전달받을 수 있다.



서비스 로봇 전시존에서는 46개 참여 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두봇(Dobot, 越疆)의 근막 마사지 로봇은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며 체험 대기 줄이 이어졌다. 제품 담당자는 "산업용으로 활용되던 기술이 점차 건강 관리 등 일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타이시인텔리전트(太希智能)의 외골격 로봇의 도움으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공개됐다. 기업의 량린차오(梁林超) 대표는 "현장에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기술로 삶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칸톤페어 1기 동안에만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CVTE(视源股份, 스위안주식)가 선보인 MAXHUB A3 지능형 다기능 로봇팔은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춰 빠르게 기능을 전환해 조립, 검사, 분류 등 여러 작업을 하나의 장비로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칸톤페어에서는 참가 기업의 약 61%가 산업 인터넷과 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융홍(石永红)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출입상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AI 기술을 적극 반영하면서, 제품이 단순한 기능 수행을 넘어 실제 활용 환경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일 기술 성과'에서 '체계 기반 경쟁력'으로

ZXMOTO(张雪机车, 장췌모터사이클) 부스 앞에는 유럽과 남미에서 온 바이어들이 붉은색의 경주용 바이크를 둘러싸고 성능을 살펴보는 모습이 이어졌다.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브랜드는 최근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WSBK) 포르투갈 대회에서 더블 우승을 기록하며, 유럽, 미국, 일본 브랜드가 수십년간 이어온 중심 구도를 흔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바이어들도 많았다. 독일에서 온 바이어 마르쿠스 씨는 현장에서 820RR을 시승한 뒤 "종합 성능이 글로벌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ZXMOTO의 기술 성과는 핵심 동력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서 비롯됐다. 회사는 '엔진은 모터사이클의 심장으로 성능의 한계를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자체 엔진 개발을 고수해 왔다. 2025년 500RR이 동급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음에도, 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7천만 위안을 연구 개발에 투입하면서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러한 투자 끝에 818cc 직렬 3기통 수냉식 엔진이 탄생됐으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2.81초가 걸리는 성능을 구현했다. 동일 배기량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의 출력 성능을 확보한 것이다.



이 성과의 배경에는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 창업자인 장쉐(张雪) 대표가 엔진 회전수를 1만5천 rpm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을 때, 팀 내부에서는 당시 글로벌 최고 수준을 넘어서는 목표라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밸브 스프링만 수십 차례 업그레이드 했고, 연료 소모 테스트에만 수십만 위안을 투입했다. 그는 "1년 동안 온전히 쉬었던 날이 5일도 되지 않는다"며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 만큼, 결과 역시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ZXMOTO의 성장은 중국 모터사이클 산업이 오랜 기간 쌓아온 산업 기반이 뒷받침하고 있다. 충칭(重庆)은 '모터사이클 산업 중심지'로 불리는 만큼, 완성차 기업 51곳과 부품 기업 410여 곳이 밀집돼 있으며, 엔진, 클러치, 차체 프레임, 휠 등 주요 부품 공급망이 구축돼 있다. 이는 산둥(山东), 장쑤(江苏), 저장(浙江), 광둥(广东) 지역의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을 아우르며, 완성도 높은 제조업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GAC(广汽, 광저우자동차) 역시 시스템 전반에서 구축된 경쟁력을 보여줬다. 전시된 AION i60에는 자체 개발한 GSD 지능형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트렁크에는 캠핑 분위기를 연출한 공간을 마련해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시회 1기 동안에만 주문 문의가 900대 이상 들어왔고, 예상 수출 규모는 1천만 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세계디지털기술아카데미(WDTA)의 듀란(Duran) 국제 최고 AI 책임자는 "기업 경쟁력이 더 이상 개별 기술의 우위에만 달려 있지 않으며, 다양한 기술과 하드웨어, 데이터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통합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칸톤페어에서 드론, 로봇, 지능형 운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모습은 이러한 '시스템 역량'의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결국 비즈니스와 기술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해내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 신화망(新华网). 지능형 제조가 이끄는 변화, 칸톤페어를 통해 본 '스마트 경제' 트렌드
<http://www.gd.xinhuanet.com/20260429/6a0f69b0b19f4819b98f71bf125dc828/c.html>
- ◆ 커지르보(科技日报). 장쇄모터사이클 경주 우승: 개인 격려 전설일까, 아니면 중국 고급 제조업의 필연적인 돌파구일까?
<https://mp.weixin.qq.com/s/mFHCld9OzxJr-fTfQ9qaig>

[기업분석]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상장기업-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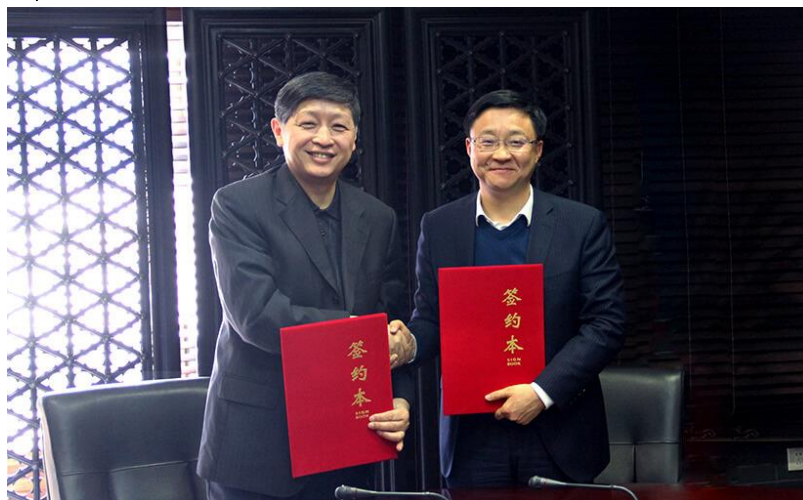
아이플라이텍(iFLYTEK, 科大讯飞)은 1999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상장기업이다. 회사는 스마트 음성,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고도화된 AI 등 핵심 AI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으며,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유일의 '고도화된 AI 국가중점실험실'과 '음성·언어정보처리 국가공정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급 산업 연맹에서 이사회 의장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산업화 응용

아이플라이텍은 자체 AI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 의료, 금융, 자동차, 도시, 통신, 산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교육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와 5만여 개 학교, 1억 3천만 명 이상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 의료

'AI 의료 보조 시스템(智医助理)'은 31개 성, 801개 구(区)·현(县)에 도입되어, 누적 11억 건 이상의 AI 진단을 보조했다. 또한 4억 9,800만 건 이상의 의무기록을 표준화하고, 186만 건 이상의 유의미한 진단 수정 사례를 확보했다.



■ 금융

국유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포함한 200여 개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 고객센터, 마케팅, 리스크 관리, 코드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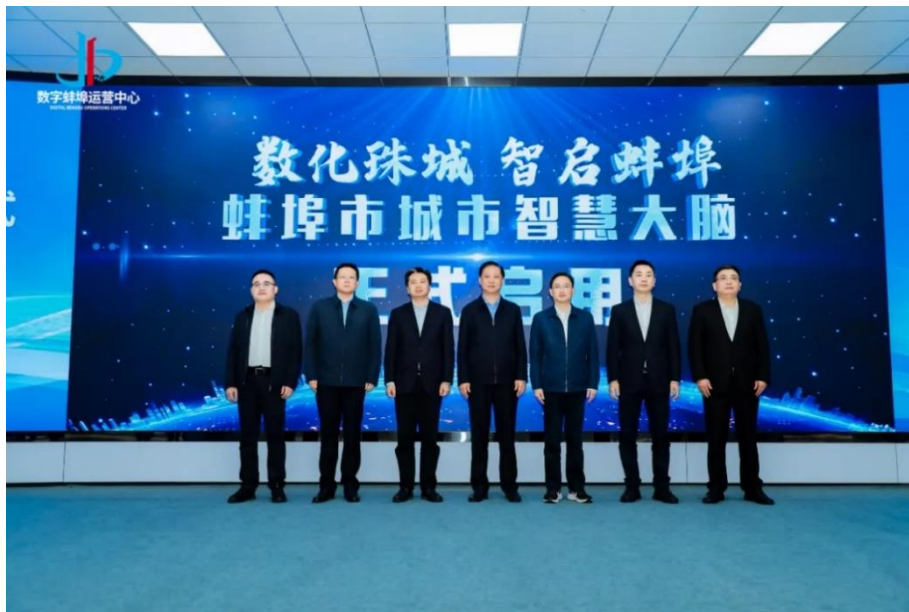
■ 자동차

이치(一汽·FAW), 동평(东风), 창안(长安), 치루이(奇瑞·Chery), 광치(广汽·GAC), 창청(长城·GWM), 폭스바겐, 닛산 등 주요 완성차 기업에 스마트 콕핏 등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양산 차량 기준 6,800만 대 이상에 탑재됐으며,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2,700만 명, 연간 사용 횟수는 160억 회에 달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용 솔루션은 23개 언어를 지원하며 100여 개 차종의 60여 개국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 도시

구(区), 현(县)을 포함한 330여 개 도시에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4,900여 개 정부 기관 및 기업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 통신

31개 성(省)에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하며, 3억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누적 음성 처리 건수는 860억 회에 달하며, '상휘(星火)' 대형모델을 기반으로 가정용 AI 에이전트와 AI 속기 등 서비스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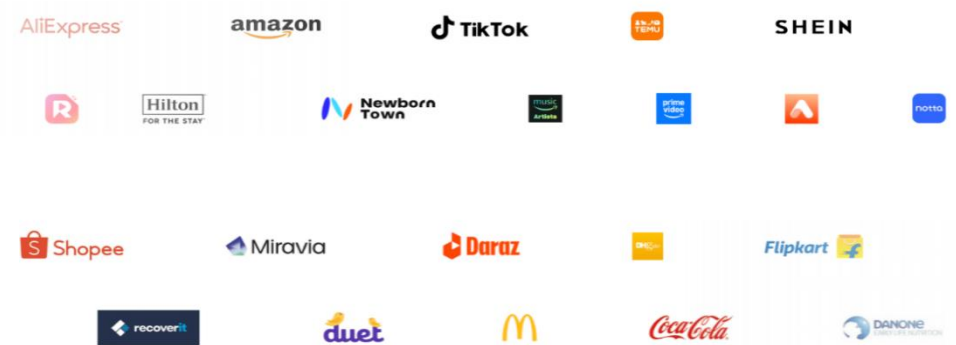
■ 산업

10개 성, 20여 개 도시에 산업용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첨단 장비 제조와 에너지 등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 스마트 마케팅

AlMarX 플랫폼을 통해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은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력 브랜드는 1,800개 이상에 달한다.



상휘(星火) 대형모델 적용 현황

아이플라이텍의 상휘(星火) 대형모델은 AI 학습기, 업무용 전자 노트, 동시통역 마이크, 음성 기록 앱, 외국어 학습 앱, 코드 생성 툴, 연구 지원 툴, AI 의료 보조 서비스' 등 일반 사용자 대상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 의료, 자동차, 금융, 산업, 에너지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 사용자용 부문: 아이플라이텍의 상휘(星火) 대형모델이 탑재된 AI 학습기, 업무용 전자 노트, 번역기, AI 녹음기, AI 회의용 이어폰 등 제품은 2025년 '쌍스이(双11)' 기간 동안 징둥, 티몰,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에서 5대 카테고리 매출 1위를 기록했다. AI 하드웨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2025년 11월 기준 '상휘' 앱의 안드로이드 누적 다운로드 수는 4억 건을 넘어섰다.

기업용 부문: 2023년 10월 이후 금융, 자동차, 통신, 산업, 주택·도시건설, 법률, 미디어, 공공행정, 문화·관광, 수자원 등 분야의 선도 기업과 협력해 20개 이상의 산업별 대형모델을 출시했으며, 300개

이상의 적용 사례를 확보했다. 또한 화웨이와 함께 중국 국산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에너지그룹, 페트로차이나, 교통은행, 중국인민보험, 바오산철강 등 주요 중앙·국유기업의 대형모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대형모델 솔루션 분야에서 91개 프로젝트를 수주해 총 8억 4,800만 위안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1~3분기에는 108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확보하며 9억 3,580만 위안의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범용 대형모델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으로, 시장 내 선도 지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산업 생태계 구축

아이플라이텍이 구축한 '지능형 음성 국가 인공지능 개방형 혁신 플랫폼'은 중국 정부가 선정한 차세대 AI 개방형 혁신 플랫폼 4곳 가운데 하나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아이플라이텍 오픈 플랫폼은 919개의 AI 제품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1,002만 6천 개 이상의 개발자 팀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애플리케이션 수는 377만 8천 개를 넘어섰고, 누적 서비스 적용 단말기는 42억 7천만 대를 넘어섰다. 또한 'AI 대학' 수강생은 118만 2천 명에 달하며, 생태계 파트너는 1,000만 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2023년 5월 6일 싱화(星火) 대형모델 공개 이후 신규 개발자 593만 2천 명이 추가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대형모델 관련 개발자는 217만 2천 명, 기업 고객은 113만 6천 곳을 넘어섰다. 2025년 11월에는 개발자 대상 오픈소스 에이전트 플랫폼 'Astron Agent'를 공개했다. 이는 기업 환경에서의 실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플랫폼이다. 현재 아이플라이텍은 중국 전역에 36개의 AI 기술 인큐베이터 및 산업 액셀러레이터 센터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1,678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했다. 관련 산업 규모는 478억 4,400만 위안에 이른다. 이와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AI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플라이텍을 중심으로 한 AI 산업 생태계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참고자료

- ◆ 아이플라이텍 웹사이트(科大讯飞官网)
<https://www.iflytek.com/en/>

[지역분석] 베이징 하이덴구 상디

개요

베이징 하이덴구(海淀区)에 위치한 상디(上地)는 활력이 넘치는 혁신 거점 가운데 하나로, 초기에는 농촌 지역이었지만 30여 년에 걸친 발전을 거쳐 중국 최초의 전자정보 산업 기지로 성장했다. 현재는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국 단위에서도 중요한 첨단 산업 집적지이자, 원천 기술 혁신이 시작되는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 집적 효과 뚜렷, 지역 경제 기여도 높아

상디(上地)에는 현재 2만3천 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약 1,200곳, 첨단기술 기업은 1,398곳에 달한다. 상장사는 26곳으로, 하이덴구(海淀区) 전체 상장사의 약 13%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 537곳, '소거인(小巨人)' 기업은 94곳에 달한다. 2024년 상디의 지역 GDP 는 1,108억 위안을 기록했다. 하이덴구 전체 면적의 약 2.2%에 불과한 지역에서 약 9%의 경제 규모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 구조를 보면,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집적회로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 양자기술, 항공우주 등 신흥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표. 베이징 하이덴구 상디 산업 구조

구분	현황
차세대 정보기술	중국 최초의 산업 클러스터 중 하나로, 산업체인 완성도가 높고 기업 밀집도가 가장 높음(기업 1만 개 이상 집적)
인공지능	전국 및 베이징 핵심 AI 산업집적지, 기업 수 기준 전국 2.6%, 베이징 10% 비중, 다수의 글로벌 AI 대기업 입주
집적회로	집적회로 분야 인재·기술 자원 밀집, 산업 생태계 완비 칩 설계 분야 전국 선도, AI 칩·통신칩 핵심 기업 다수 보유
바이오의약	높은 기업의 R&D 역량 보유, R&D 중심 기업 비중 90% 이상, 바이오의약 산업 매출 하이덴구 상위권
양자기술	중관촌(하이덴) 양자과학 미래산업단지 및 양자기술 인큐베이터기반, '연구-검증-응용' 생태계 형성
항공우주	높은 혁신 R&D 역량을 기반으로 위성항법, 항공전자, 우주정보 응용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선도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든 혁신 창업 생태계

상디(上地)에는 하이덴구의 대학 밀집 지역과 인접해 있어 우수 대학과 혁신 기업이 집적돼 있고, 인재와 기술이 서로 오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이곳에서 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50개 이상이 상장에 성공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디는 차세대 정보기술 인재들의 대표적인 창업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역 내에는 30곳이 넘는 인큐베이터가 운영되며, 인큐베이션(창업초기)-엑셀러레이터(성장단계)-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다. 또한 딥러닝 기술 및 응용 국가공정연구센터 등 국가급 연구 플랫폼과 15곳 이상의 박사후 연구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여 개 투자기관이 모여 있으며, 정기적인 기업 설명회와 함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단지	사진	소개
중관촌(中关村) 소프트 웨어단지		IT 기업 본사 및 글로벌 R&D 센터 700여 개 입주, 상장사 70곳 배출, km²당 생산액 2,000억 위안 이상
하이귀자예(海国嘉业) 테크단지		혁신 자원 통합, '기업-단지 동반 성장' 모델 구축
하이귀루이예(海国瑞业) 테크단지		산업망, 투융자, 인재·법무·세무 연계 지원, 브랜드 활동 제공
융커융즈(融科融智) 혁신단지		핵심 지역 입지, 낮은 용적률과 높은 녹지율의 쾌적한 업무 환경 제공
중국 베이징(하이덴)유학인재 창업단지		전국 인재 유치 거점으로 기업 약 3,000개 육성, 해외 유학 인재 1,600명 유치, 상장사 31곳 배출
중관촌 바이오의약단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 기술 서비스 제공
홍위안서우주(弘源首著) 빌딩		개방형 단지로 조성된 첫 사례, 전면 Low-E 유리 커튼월 적용으로 360도 채광

가오커링(高科岭)		녹지율 54%, 용적률 0.7에 달하는 저밀도 정원형 오피스 단지
상디(上地) 글로벌테크 창업단지		금융, 외식, 쇼핑,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결합된 대표적인 복합 단지
중관촌 창업빌딩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인접, 기술의 사업화 전환 효율 우수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업 서비스 체계

상디(上地)는 기업 협력 조직과 네트워킹 공간, 행정 지원 거점을 결합한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정착부터 공간, 보조금, 생태계, 금융, 인재, 기술, 해외 진출, 정부-기업 연계 등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무료 사업자 등록 주소 제공과 입지 선정 지원, 전정특신(专精特新) 소거인(小巨人) 기업 대상 자금 지원, 대규모 산업 펀드 연계 및 1.5% 수준의 정책 금리 지원과 보증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바이두(百度)와 협력해 'AI 산업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교류 행사와 기업 방문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과 생활이 어우러진 주거·업무 지역

상디는 '15분 대중교통 생활권'을 갖추고 있으며, 상디(上地), 칭허(清河)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지역 전반의 접근성이 확보돼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베이징 101 중·고교(상디 학군), 칭화대 부속 실험 중·고교 등 명문 학교가 밀집해 있어, 중관촌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학군으로 꼽힌다. 또한 101그룹의 초·중·고 통합 학교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주거 여건 역시 다양하다. 기존 주거 단지와 함께 쉘푸이하오위안(学府壹号院), 위안밍텐송(圆明天颂) 등 고급 주거 단지가 형성돼 있으며, 출퇴근이 편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 내 12개 공원이 가까이 분포해 '15분 공원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며 화련(华联), 완상후이(万象汇) 등 상업 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KIC 뉴스



대구시청 대표단 KIC 중국 방문 및 메이탄 시찰...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협력 '가속도'	31
2026 WRC 연계 한중 로봇 혁신 파트너십 워크 모집 공고	33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34



대구시청 대표단 KIC 중국 방문 및 메이탄 시찰...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협력 '가속도'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청 대표단을 맞이하여 양국의 미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교류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에는 대구시청 미래모빌리티과 조경재 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KI-API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 속에서 한·중 양국의 실질적인 산업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좌담회는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그리고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UAM)'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양측은 각자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력을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 모델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좌담회에서 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은 센터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사업 체계, 2026년도 주요 프로젝트 운영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 센터장은 "KIC 중국은 한국 스타트업의 중국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양국의 우수한 혁신 자원을 연결하는 국가적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중국 내 5대 도시군에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대구시의 전략 산업이 중국 현지 산업 생태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청 미래모빌리티과 조경재 과장은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대구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6)'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대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저고도 경제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강점을 설명했다. 대구시청 대표단은 "창업 보육과 리소스 매칭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KIC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유망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 및 전시회 연계 등 다각적인 협업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측은 특히 피지컬 AI 등 차세대 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유니콘 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 기업들이 겪는 기술적 병목 현상을 긴밀히 공유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좌담회 이후 대구시청 대표단은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기업인 메이투안(Meituan) 본사를 방문했다. 메이투안의 '리테일+과학기술' 비즈니스 모델과 더불어, 신개념 온라인 신선식품 서비스인 '샤오샹'

슈퍼(小象超市)', 그리고 도심 물류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 실시간 배송 시스템 등 혁신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물류 드론 상업화 시범 운영 사례를 공유했으며, 메이투안 측과 저고도 경제의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시찰은 향후 한중 양국의 저고도 산업 협력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은 "이번 대구시청 조경재 과장 일행의 방문은 한국 지자체와 중국 혁신 생태계 간의 효율적인 접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KIC 중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혁신 허브로서 모빌리티, AI 등 중점 분야의 자원 매칭과 프로젝트 착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국 산업 생태계의 공동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2026 WRC 연계 한중 로봇 혁신 파트너십 워크 모집 공고

WRC 2026

한·중 로봇 혁신 파트너십 워크

KOTRA × KIC중국 | 참가기업 모집공고

모집개요

세계 로봇 산업의 최전선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로봇컨퍼런스(WRC)를 무대로, KOTRA베이징무역관과 KIC중국이 함께 한국 로봇·AI 혁신기업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중국 로봇 공급망 진입을 원하는 기업, 중국기업과 기술협력/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 중국 로봇산업 생태계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기업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행사에 담았습니다. 중국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의 로봇 혁신 기업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개요

- 주최·주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한국연구재단, 중국전자학회(CIE), 세계로봇협력기구(WRCO)
- 기간: 2026.08.18(화) ~ 2026.08.21(금)
- 장소: 베이징 이창국제회전중심
- 연계 전시회: 제11회 세계로봇컨퍼런스

주요 프로그램

- ✓ 1:1 메이저 中로봇기업 파트너링 상담
 - ✓ 한·중 투자자·선도기업 대상 IR 데모데이
 - ✓ WRC 전시장 내 한국관 개별 부스 제공 (선택 사항)
 - ✓ 베이징 첨단 로봇기업·혁신기업 현장견학
- *지원: 참가기업 3박 숙박비
*전시부스 신청 기업은 8.23까지 현장 상주 필수

모집안내

- 모집 규모: 총 15개사 이내
- 모집 대상: 로봇·AI 분야 부품·모듈·제어솔루션 기업 및 딥테크 스타트업
- 모집 기한: 2026.05.24 18:00까지 (중국시간 기준)
- 접수 방법: 하단 QR코드 접수->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선정절차: 신청제출 → 서류심사 → 결과통보

문의처

- 이메일: wenjing@kicchina.org
- Tel: +82) 070-4084-1234 +86) 010-6780-8840



KIC 신청링크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제41회 중국자동차협회 청년과학자연례대회 (YAC2026)	2026.05.08-2026.05.10	창사	인공지능
아시아 의료 및 보건 정상 포럼	2026.05.11-2026.05.12	홍콩	의료건강
2026년 제6회 국제 정보 기술 및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ITCC2026)	2026.05.22	광저우	정보 기술
2026년 제7회 국제 무선 통신 및 빅데이터 컨퍼런스(CWCBD2026)	2026.05.22	광저우	정보 기술
2026년 제7회 IEEE 국제 컴퓨팅, 네트워킹 및 사물 인터넷 컨퍼런스(CNIOT 2026)	2026.05.22	광저우	정보 기술
InnoTech 2026: 혁신 및 기술 경영 컨퍼런스	2026.05.22-2026.05.25	베이징	인공지능
2026년 (제4회) 국제 자동차 신소재 컨퍼런스 (ICNMAI2026)	2026.05.27-2026.05.28	안후이	자동차
제6회 중국-해외 광산업 공급망 발전 포럼	2026.06.10	베이징	에너지
2026년 무인 항공기(UAV) 응용 및 제어 국제 컨퍼런스	2026.06.25-2026.06.27	베이징	인공지능
2026 중국 스마트 에너지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6.7.09-2026.07.11	청두	에너지
2026년 제11회 국제 신호 및 영상 처리 학회 (ICSIP2026)	2026.7.17-2026.07.19	창저우	정보 기술
2026년 인공지능 및 정밀의료 국제 심포지엄 (AIPHC)	2026.7.17-2026.07.19	청두	인공지능
제10회 국제 원격탐사 기술 및 응용 컨퍼런스 (ICRSTA)	2026.7.17-2026.07.19	청두	정보 기술
제6회 국제 의약화학 및 신약 개발 심포지엄 (MCDD)	2026.7.17-2026.07.19	청두	의료건강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